

△조계종 9교구신도회와 대구지역 20개 신행단체 임원 등 400여 불자들은 6월28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오른쪽)으로부터 종책설명회를 듣고, 종무행정에 자발적인 동참을 다짐했다.

신도들에 종책설명회 '눈길'

대구 동화사, 교구신도회·20개 단체에... '종무행정 동반자' 인정

현재 출가 수행자의 단체만을 일컫는 말이 된 '승가'. 초기에는 비구, 비구니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 남성신도인 우바새와 여성신도인 우바이를 포함한 4부대중(四部大衆)을 의미했다.

이처럼, 출가대중의 파트너로서 재가대중이 법륜(法輪)의 한쪽 수레 바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지성)가 신

임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4년간의 교구 종책을 설명하며 비전을 제시했다.

지성스님은 이 자리에서 "21세기 불교의 기풍은 수행도량 조성, 지역 불교계의 화합, 수행과 기도, 봉사하는 대구불교 건설을 3대 운영지표로 삼아 임기 동안 교구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성스님은 이와함께 수행 기풍

해 교통안전 기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신도회 박진수 국장은 "이례적으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종책설명회를 가져 신도들이 환희심을 느끼고 있다"며, "스님들이 신도들을 종무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승가상의 모범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종책 실현을 위해 신도들의 동참을 당부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종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신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신도회 한 간부는 "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중단 및 사찰 운영을 위해 '사찰운영위원회법'(신도회 회장 및 부회장의 의무적인 사찰운영 참여를 제정했지만,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가자를 교단의 일부로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 전환과 신도들의 참여의식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101@buddhapia.com

20일부터 백고좌법회·수행 풍토 조성

"바람직한 승가상" "입안때 신도의견 반영"

도들을 대상으로 종책설명회를 가져 화제다. 그간 말사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종책설명회는 간혹 있었지만, 신도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동화사는 6월 28일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주지 지성스님과 소임자 스님, 말사 주지 스님, 장영관 9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한 20개 신행단체

조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 7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백일동안 백분의 고승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마련하고, 기초선원 및 승가대학 학사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화사는 특히 백고좌 법회 기간 100 좌의 부처님을 통일 대불전에 봉안하고 범국민적인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교통안전당을 설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선은 본가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수련법회자료집 증보판 발간

조계종 포교원 사찰수련법회증보센터(소장 용하스님, www.pogyo.org)는 4월 수련법회 자료집 <참나무 찾아가는 수행>(조계종출판사) 개정 증보판을 발간했다. 사찰 예법,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수행법, 사찰의 이해, 수련법회 운영프로그램 소개, 예경, 의식 등을 담고 있다.

306보충대대 법당기공식

총 180평규모, 군불교위·군불교진흥회 건립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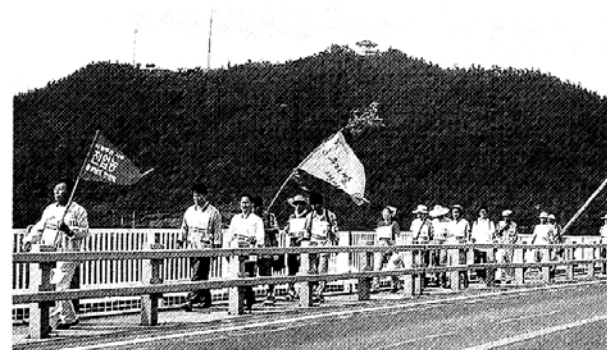
경기도 일원 3군지역의 신병 입대 부대인 306보충대대 법당 기공식이 13일 의정부 306보충대대 법당부지에서 열렸다.

독실한 불자인 대대장의 발원으로 추진된 이번 불사는 조계종 군불교 위원회와 군불교진흥회가 부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립을 후원함으로써 성사됐다. 306보충대대 법당은 제2군수지원사령부 호국호원사와 건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3억여원의 공

사비를 투입해 진행된다. 법당 150평, 요사 30평 총 180평 규모로 불사가 추진되며, 토목공사 비용 등은 해당부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제2훈련소 입소대대와 102보충대대는 군법당이 마련됐지만, 육군 신병 입소부대 3곳중의 하나인 306보충대는 연 12만명의 장정들이 거처가는 관문 부대이면서도 법당이 없어 대회의실에서 법회를 열어왔다. 또 기간병들은 적십자에서 장병 휴게실로 제공한 10평 남짓의 공간을 법당으로 개조, 법회를 진행해왔다.

법당이 건립될 경우 군내내 종교가 최초로 종교행사 참석시 결정된다. 법당에서 군포교 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봉영 기자



△농업희생연대가 6월25일 발대식을 가진 후 '우리쌀 지키기'를 위한 1백일 대장정에 돌입, 진도대교를 넘어가고 있다.

'우리쌀 지키기' 대장정 100인 1백일 걷기운동

인드림생명공동체가 주축이 된 농업희생연대(준)의 우리 쌀 지키기 운동을 위한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이 1일 진도 용장산성을 출발해 10월 10일까지 장장 1백일만에 걸쳐 전개된

다. 6월25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원모임을 가진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 참가자들은 진도-광주-전주-대구-대전-원주-서울 등 총 1449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답사하고, 벌교,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10개 도시에서 '우리쌀 지키기' 릴레이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불국토' 창립 7돌...새도약 다짐

22일 기념행사, 부산불교복지 큰 기여

부산지역 불교사회복지의 선두주자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가 창립 7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95년, 불국토는 부산 불교계에 최초로 개교복지관을 위탁 받았으며, 이후 양정청년수련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 캠프 하우

7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산하 기관간의 화합과 정보 공유의 시간과 함께 2002년 상반기에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모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당선된 당선작과 당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가졌다.

불국토 산하 기관인 양정청년수련관, 용호복지관, 개교복지관은

컴넷하우스 개원 정신장애인도 수용 우수프로그램 자료집 발간 배포키로

스, 보현어린이집, 영주어린이집, 용호어린이집 등 7개 산하기관을 위탁받으며 복지분야에서 급성장했다.

특히 4월 29일 개원한 컴넷하우스는 불국토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정신 장애인의 복지까지 불국토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7월 22일 대도부페에서 열리는

부산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 문화관광부 등에서 실시한 공모전에 장애우와 장애우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정신지체아와 재활관련 프로그램 등 8건에 대해 총 4천8백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성과를 거뒀다. 불국토는 2001·2002년 당선 우수프로그램 자료집을 제작해 프로그램 보급과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초의선사 생가복원

다성사·기념관등 개관

독특한 선종과 차문화를 보급시키며 침체된 조선불교의 흥을 꾀했던 초의선사의 생가가 복원됐다.

전남 무안군은 초의선사 생가터인 삼향면 황리리 산 94-3번지 일대 3만 331㎡ 부지에 생가와 다성사, 추원비 및 기념관 등을 건립하고, 6월 22일 성상 봉안과 기념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초의선사 생가와 기념관은 97년 5월 초의선사기념사업회(회장 김기현)가 '현충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며 초의선사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완공됐다. 투입된 공사비는 총 31억여원.

무안군은 추가로 일지암, 다문화관과 인근에 대규모 차밭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초의선사 생가와 화산방죽연꽃군락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목탁소리 풍경소리를 아시나요?

이은자 (취재2부 차장)

"옛날 옛날 히말라야 산에 공명조를 아시나요?"

기자가 대학재학시절 어린이법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찬불동요 '공명조 이야기'가 하나의 한 부분이다. 이렇듯 찬불동요가 없었던 그때 중이에 찬사된 악보를 나누어주며 흥과 노래를 어린이불자들이 함께 배웠던 이 노래가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의 오늘을 있게 한 시발점이라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지난 1994년 찬불동요·가요 창작과 보급의 원력을 세우고 이종만, 정유택 등 몇몇 젊은 불자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 수송동 쪽방에서 활동을 시작한 좋은 벗 풍경소리. 그동안 총 14장의 찬불동요 앨범과 법회음식곡집 등을 펴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 찬불가를 지켜온 사

람들이다.

이같은 풍경소리가 지난 5월 초 서울 마포의 사무실을 비워야만 했다. 사무실 사용료를 제때에 내지 못해 자비를 모아 마련한 사무실 임대보증금 1천만원이 모두 까먹고 거리로 나앉은 형편에 놓여있던 것이다. 하지만 풍경소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한 청도 문운사 대종스님들과 몇몇 스님들이 뜻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고, 조계사 인근의 불구용품전문점 김상원 사장이 마음을 내어 김상원 2층 창고 한 칸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3월 한국불교 1번지 견지동에 새 보급지리를 마련한 좋은 벗 풍경소리. 지나는 시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 감로불교대 첫 졸업생 배출

253명 수료식, 1천200만원 모금 학교발전기금 전달

계율과 수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개설했던 부산 감로불교 교양대학(학장 혜종)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장 혜종스님, 부학장 관일스님을 비롯 3백여명의 졸업생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감로사에서 열린 감

로불교대학 1기 졸업식에서는 계율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아울러 삼귀의 계와 오계를 수지한 253명의 졸업생들이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학생회 회장단에서 1천2백만원의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해 화제를 모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할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진인 마이산 탐사
☎ 063)433-2900, 0303 432-0652, 0072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량형 전통 한식기와입니다.

특성은 풍설 폭우 한파의 약천후에 균열이나 동파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율동과 같습니다.

한옥기와 **청기와** **오지와**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 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력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부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